

시노드 자문 모임 조직을 위하여 제시하는 지침

시노드 자문 모임은 본당의 다양한 단체 간에 또는 여러 본당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모아 조직될 수 있다. 다른 교구 기구나 수도 단체, 평신도 단체도 자문 모임을 개최하는 데에 협력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는 순서들의 일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차원의 자문 과정과 모임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대화하고 참된 시노드 체험에 참여하도록 증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식별하는 **운영 팀**을 구성할 수 있다.
2. 본당 공지, 소셜 미디어, 서한 등을 통하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학교와 사회 복지 센터와 같은 지역 이웃과 교회 기관의 도움을 받아, 상당 기간 교회 공동체와 정기적 교류가 없었던 이들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배척받는 이들 또는 흔히 의견이 고려되지 않는 이들을 포함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3. 공동체, 체험, 문화, 연령, 직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을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체 규모는 사용 가능한 장소와 활성화 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4. 모임 약 2-3주 전에 기도와 성찰을 위한 **준비 자료**를 모든 참가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이 자료에는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간략한 배경 내용, 주요 성찰 질문(들), 이 질문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식별하기 위한 제안 방법과 권장되는 성경 구절들이 포함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도 시노드 모임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공지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준비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풍요로운 대화를 위하여 중요하기 때문이다.
5. 주요 **성찰 질문**들은 유의미하고 간략해야 한다. 많은 질문을 준비하여 피상적으로 다루기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질문의 수가 적은

것이 더 낫다. 이번 세계주교시노드는 다음의 근본 질문을 던진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걷는다’. 오늘날 여러분의 지역 교회에서는 이 ‘함께 걷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함께 걷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순서들을 밟도록 초대하시는가?”(『예비 문서』, 26항)

우리가 이 질문에 응답하려면 다음 사항들이 요청된다.

- 우리의 체험을 상기한다. 이 질문이 우리 지역 교회의 어떤 체험을 떠올리게 하는가?
- 이러한 체험을 더욱 깊이 있게 되짚어 본다. 체험을 통하여 어떤 기쁨을 얻었는가? 어떤 어려움과 장애를 맞닥뜨렸는가? 어떤 상처가 드러났는가? 어떤 통찰을 끌어내었는가?
- 공유할 결실들을 모은다. 이러한 체험 속에서 성령의 소리가 울려 퍼진 곳은 어디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확인 사항들과 변화 가능성과 진행 순서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동의를 표명하는가? 지역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길들이 열리고 있는가?

참가자들이 자신의 지역 공동체가 지금까지 걸어 온 여정에 관하여 성찰하는 것은 흔히 매우 효과적이다. 공동체의 신앙생활의 역사는 어떠하였는가? 지금의 모습을 이루기까지 공동체는 어떠한 길을 밟아 왔는가?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셨는가? 함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종종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의 앞길을 이끌어 준다.

사람들이 이 근본 질문을 더욱 충분히 살펴보도록 돕고자 열 가지 주제들이 마련되어 “실천된 시노달리타스”(『예비 문서』, 30항)의 중요한 측면들을 강조한다. 열 가지 주제에 각각 따르는 질문들은 시작점이나 풍요로운 자문을 구하는 데에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편람』의 제5부에서 볼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주교대의원회의의 웹 사이트의 첨부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6. 자문 모임을 위하여 선택된 방법과 형태에 따라 충분한 인원의 단체 **활성가**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들은 이 과정의 수행을 위하여 적절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문 **종합**을 준비할 이들로 구성된 팀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7. 모임에서 **공동체 기도와 전례**는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서로 경청하는 것은 하느님 말씀과 성령께 귀 기울이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한다. 의미 있는 기도 양식들을 이용하여 하느님의 인도와 감도를 청하여, 그분께서 우리가 서로 더 깊은 친교를 이루도록 이끄시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례와 공동 성경 묵상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8. 시노달리타스의 원리가 적용되는 적절한 방법을 **단체 대화**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성적 대화** 방법은 능동적인 참여, 세심한 경청, 사려 깊은 발언, 영적 식별을 촉진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자 6-7명으로 나누어 소그룹을 이룬다. 이 방법은 최소한 한 시간이 소요되며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이가 사전에 전달받은(이 부록의 5항 참고) 성찰 질문과 관련한 자신의 기도의 열매를 공평하게 차례대로 나눈다. 이 때에는 토론 없이, 모든 이가 그저 서로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발언하고 있는 사람 안에서, 그룹 전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집중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 내면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단계는 참가자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깊이 감동받은 것과 침묵의 시간에 그들 마음을 울린 것에 대하여 나눈다. 약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영적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고 유지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대화 안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깊은 감동을 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찰한다. 새로운 통찰과 심지어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도 기록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기도로 대화를 마칠 수 있다. 보통 이 소그룹에는 활성화와 서기가 한 명씩 있다(이 과정의 자세한 설명은 주교대의원회의 웹 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다.).

9. 단체 대화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소그룹 과정에서 체험한 것을 **되짚어 보고** 나누어야 한다. 그들의 체험은 어떠하였는가? 장단점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새롭고 신선한 관점을 발견하였는가?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전개 방법에 관하여 배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는가?

10. 그런 다음 참가자들은 운영 팀/활성가 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피드백**을 결정한다. 「편람」의 제4부에서 서술하는 교구 종합을 위한 안내 질문들을 지역 단계에서 이러한 피드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부록 라〉 참조).

11. 그리고 나서 모든 참가자는 함께 모여서 모임을 마무리한다. 각 소그룹에서 대표자 한 명이 그들이 나눈 체험을 간략하게 나눌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시노드 과정의 다음 단계에 관하여 알려 주어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의견이 온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이바지하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한다. 감사의 기도나 노래로 모임을 마칠 것을 권고한다.
12. 모임 이후에 운영 팀/활성가 팀 구성원들은 체험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소그룹들이 제출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종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만날 수 있다. 그런 다음 이들은 교구 책임자(들)에게 자신들의 종합을 전달할 수 있다.
13. 사람들이 대면으로든 온라인으로든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문자 메시지나 전화, 라디오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가 모든 이, 특히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 자료는 주교대의원회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주교대의원회의